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고인이 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책 **희망의 신학**을 자주 다시 읽습니다. 그 책의 **“희망은 우리가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문구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북일리노이-위스콘신 연회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희망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역회 영상을 통해 비록 잠시나마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자들은 모두 연회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역회를 위해 모인 여러분과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지역의 700개 교회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도 가끔 놀랍니다.

한번은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 상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놀라기도 했고 조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 이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이시군요! 오늘 아이스크림은 제가 사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이번 구역회 기간에 모든 교회에서 이 영상을 꼭 보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희망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탈무드에는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현자 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호니가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캐롭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니가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70년이 걸립니다.”

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는 제 조상들이 심어 놓은 캐롭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심었듯이, 저도 제 후손들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호니는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그의 주변을 돌이 둘러싸게 되어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호니는 누군가가 그 캐롭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손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자신은 결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라는 땅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땅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주일예배 참석자는 35명 이하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체적인 헌금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직 교회의 문을 계속 열어 두기 위해 불과 6개월 만에 수만 달러, 때로는 십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리사가 “우리가 재정을 좀 더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 연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만 교회가 문을 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돈인데, 왜 쓰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느 길이 우리의 선교입니까?

연합감리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땅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이 땅의 손주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심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래라는 땅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씨앗을 심기 위해 어떤 사역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희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주들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나누어 왔습니다. 제 손주들은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도시락 가방에 여권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인종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목인하고 있는 교회에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혹은 무료 급식소나 일터에서 사람들이 추적당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공동체에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재해의 대책으로 바쁜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스칸신의 메나샤와 우리 두 연회의 여러 지역들이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 대응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돌보는 일에서도 더 좋은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가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도와줍니다. 희망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이미 일어난 상처와 피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미래라는 땅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가능성을 그 땅에 심는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희망은 로마서 5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는 풍성한 선함에서 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오늘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합시다. 희망을 동사로 만듭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조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